



##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24) 언약의 시작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 카인과 아벨 - 이종현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32) 육신의 물, 영혼의 물 - 김경태     | 6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7)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9쪽 |

## 인사말



살림!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향한 많은 여름 행사를 알차게 꾸려가고 있을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 다들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온통 진화론으로 둘러싸인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역에 밀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창조되어진 해와 달이 펼친 장엄한 부분 일식을 지난 7월 22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복음 증거의 삶이 회원 모두들 앞날에 영글어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고문 안 복 수 올림 -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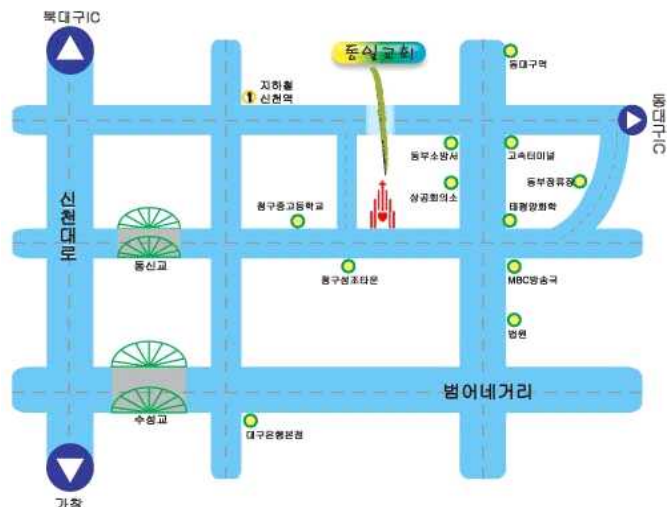
일시: 2009년 9월 3일(목) 오후 7시

장소: 동일교회 306호

☎ (053) 743-6058

내용: In the Beginning (최신판)

(by Walt Brown)





## 언약의 시작

### (The Noahic Covenant—A New Beginning)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창 6:18)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 창세기 6:18, 새번역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shall enter the ark--you and your sons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 Genesis 6:18, NASB*

*But I solemnly promise that you, your wife, your sons, and your daughters-in-law will be kept safe in the boat. - Genesis 6:18, CEV*

의인 여덟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다(established). 성경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언약(covenant)은 그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관계(relationship 또는 bond)'를 내포한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수 이전에 말씀하신 이 언약은 홍수가 끝난 후 무지개를 사인(sign)으로 보여주신다.

언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노아가 죽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아홍수에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다. 바로 '홍수'와 '방주'이다. 하나님께서 홍수는 심판의 도구로, 방주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홍수는 하나님의 엄하심을 추호의 여지없이 보여주는 반면, 방주는 그 크기, 재료, 제작과정부터 꼼꼼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다. 바로 은혜를 입어(6:8) 노아가죽이 타게 될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관계가 형성된 방주에 있던 자들을 그 심판의 기간 동안에도 권념(remember, 8:1)하셨다.

그러므로 노아홍수는 성경 가운데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침례하게 대립되어 있는,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실례를 들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차이도 침례하게 나타난다.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받아(6:7)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으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여덟 가족은 방주에 승선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 '그들은(홍수로 죽은 자들)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3:21), 베드로 후서에 '옛 세상(홍수 이전의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2:5) 라고 오직 여덟 명뿐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여덟 명은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의를 전파했으며, 경건했던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guarantee)라고 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 7:22). 새 언약의 싸인으로는 성찬을 주셔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mediator)로써 첫 범죄부터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이어주셨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히 9:15). 또한 그의 피와 죽음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히 13:20).

*Because of this oath, Jesus has become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 Hebrews 7:22, NIV*

*For this reason He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so that, since a death has taken place for the redemption of the transgressions that were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those who have been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 of the eternal inheritance. - Hebrews 9:15, NASB*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드렸을 것이다. 우리는 노아시대 언약관계가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이로 인하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회복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바로 새 언약의 싸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433&param=type=C|authname=이재만> **참조**

## 카인과 아벨

### (Cain and Abel)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셨다(하나님이 아담은 직접 부르셨으나 하와는 아담이 범죄하고 벌을 받은 후에 산 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부른 이름이다). 그분은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이 더 많이 원하도록 유혹하였고, 이것이 죄를 낳았다. 그들은 쫓겨났고, 그들의 낙원을 떠나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죄가 계속되었으며, 어느 날 카인은 밭김에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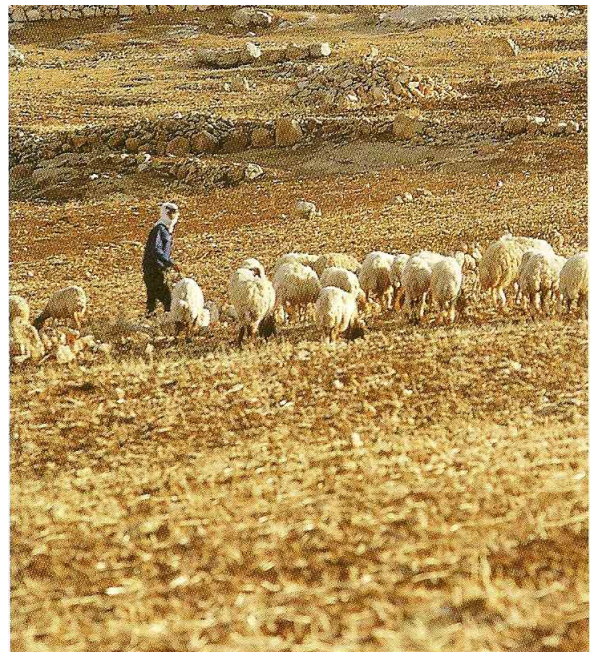
#### 아담과 하와의 가족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족을 이루기 시작했다. 카인, 아벨, 셋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으며, 성경에는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낳았다.

#### 카인

카인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아들이었다. 인생의 초기에 그는 농부였다.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창세기 4:2하;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그는 살인을 한 최초의 사람이었으며(4:8), 하나님은 에덴에서 멀리 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선고하셨다.

그의 가족과 떨어져서, 카인은 떠나야 했으며 늦 땅까지 갔다. 거기서 그는 첫 번째 도시를 세웠으며(4:17), 최초의 음악가와 금속세공자들의 조상이 되었다(4:21-22). 그러나 카인의 모든 후손들은 노아 때의 대홍수에 멸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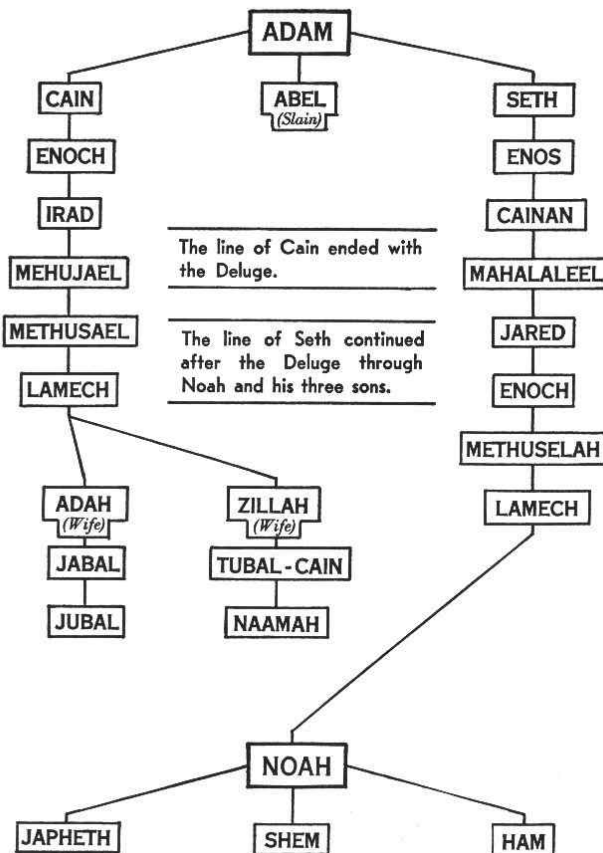
<카인은 농부였으며, 아마도 밀을 재배했을 것이다. 아벨은 동물을 키웠으며, 목동으로서 많은 세대의 양들을 가졌을 것이다.>

## 아벨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으며, 카인의 남동생이었다. 아벨은 목동이였으며, “양치는 자”(창세기 4:2)였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그 결과 카인은 질투하게 되었으며 아벨을 죽였다. 이것이 역사에서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성경에는 아벨의 후손이 아무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후손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셋

셋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언급되는 아들이었으며, 오직 그의 후손의 계통만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가계는 노아를 통해 보존되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지속되었다. 수백 년 후에 이 계통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Genealogy from Adam to Noah)

다운로드

<http://heartofwisdom.com/homeschoollinks/seth-to-noah/>

## 눗 땅

그의 동생을 살해한 후에 카인은 눗 땅으로 이주했다. 성경은 눗이 에덴의 동쪽에 위치했다고 말한다. 거기서 카인은 그의 가족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도시를 건설했다. 눗에 관해 다른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떤 사람은 눗은 단지 사람이 저주를 받아 떠돌아 다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자들은 “눗 땅”이라는 구절을 “방황의 땅”이라고 번역한다. (역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은 실제의 장소이다.) **참조**





## 육신의 물, 영혼의 물

몇 해 전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나 비가 많이 내렸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교적 남쪽 지방이라 겨울철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가 드문데 그 해 겨울에는 매섭게 추운 날로 인해 눈이 자주 내려 나무마다 아름다운 눈꽃을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춘삼월에 들어 와서까지도 비가 내리던 중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비가 눈으로 변해 펄펄 쏟아지기도 했다. 요사인 강수량이 부족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마실 물까지 없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부디 주님께서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린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13억 8,600만  $\text{Km}^3$ 로 계산되는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담수로서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 그리고 강과 호수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현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물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인체의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하루에 2.0~2.5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체내의 물은 약 16일에 한번 완전히 치환된다고 한다.

물은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각종 내분비선이나 외분비선으로부터 호르몬이나 효소가 각각 분비되는 작용,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 배설작용, 노폐물 제거, 혈액의 부피 조절 및 순환, 호흡, 그리고 질병에 대한 면역 활동 등 체내의 모든 생리현상에 필요하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의 1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체내 모든 기관의 기능적인 이상이 오고, 20% 이상 탈수되면 생명이 위협하다.

물은 이러한 생리적인 기능 외에도 음식의 조리, 세탁, 목욕, 청소, 산업용수 등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소득과 문화 수준이 향상되면 필수록 1인당 물의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물은 물리 화학적인 성질이 독특하여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알맞은 용매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하여 밀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줄어든다. 알코올이나 석유 등 액체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물은 냉각이 될 때 섭씨 4도, 정확하게는 섭씨 3.98도까지는 부피가 줄고 밀도가 증가하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오히려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얼면 물보다 밀도가 낮아 수면에 뜨게 된다. 그리고 얼음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얼음 아래의 물에 대해 덮개처럼 씌워서 보온효과를 가지게 하므로 수초를 비롯하여 물고기들이 추운 겨울철에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표면 장력이 커서 우리가 가는 유리관에서 흔히 보는 모세관 현상(capillary phenomenon)으로 인해 나무뿌리로부터 빨려 들어온 물이 수십 미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질량의 물질이지만 녹는점과 끓는점의 범위가 넓어 물을 이용하는 생명체가 최적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만일 어는점과 끓는점이 적당치 않아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세포 내의 물이 수증기로 날라 가거나 혹은 얼음으로 변해 버린다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열용량이 커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 준다. 물은 화학적으로도 극성을 띠고 있어서 생체물질들이 잘 녹는 훌륭한 용매로 작용을 하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효소의 반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생체에서 일어나는 합성과 분해 등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해 준다. 또한 기화열이 540cal/g나 되므로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는 데 아주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합성된 식물의 유기물을 동물이 섭취하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듯 생명체의 생존에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7장 37-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다. 여기에서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로 다음 구절에 언급되어 있다.

*Now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cried out, saying,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 John 7:37-38, NASB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동안에 영적 생명을 상실한 채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의로운 인간으로서 내가 지은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있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이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올라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물이 사방으로 흐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역하심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 흘러 넘쳐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이 점차 많아져 발목까지 오르다가 이윽고 무릎까지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물이 많아져 허리까지 이르고 마침내 물이 창일하여 서서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쳐야만 하는 정도가 되었다. 큰 강을 이루는 물은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지금의 사해 바다인 아라바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강가에는 각종 나무가 무성해지며 실과가 끊어지지 않고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령님의 뜻에 의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발전해 가야 함을 말해 준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차다가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마음껏 헤엄을 치듯이 모든 영역에서의 삶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욕심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때 시간 때 순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폭과 깊이가 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며, 멋지고 매력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생수에 대해 알게 되고, 생수의 강 좌우편에 들어선 각종 실과나무처럼 신앙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세상의 강물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탁류를 담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세상과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기 쉽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며 새로운 생수의 물줄기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강물처럼 흘러 생수가 스며들어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 날 것이다. 크리스천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세상의 탁류는 정화 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 생명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뜻이 우리 주위에 편만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로워지기를 기도해 본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참조**



##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성경적 창조론자이자 대홍수 지질학자들이 그랜드캐니언에 있는 암층들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성경적 권위(성경에서는 그랜드캐니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나 신비적 혹은 초자연적 지질작용 중 어느 것에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증거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그 증거는 또한 규모에 있어서 단지 지역적이 아니라 광역적 혹은 대륙적이거나 심지어 전 지구적임을 말해주는 것 외에도 저탁류(turbidity currents)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지질작용이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함을 암시함을 보여줍니다. - 게리 파커(Gary Parker)

[매혹적인 맷카타미바캐니언(Matkatamiba Canyon)]

다운로드 <http://www.flickr.com/photos/timtuttle/3010881541/>

1980년대 말 어느 봄에, 나는 한스지류 산길(Hance Creek Trail)에서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가는 배낭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아름답지만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산길에서 벗어나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여러 지점을 들렀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한스 급류에 도착했을 무렵, 우리는 더 이상 배낭에 들어있는 냉동건조식품을 먹는 것에 특별히 열중하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녁에 래프팅 그룹과의 랑데부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그룹이 서로 알게 됨으로써 즐거운 크리스천 교제뿐만 아니라, 래프팅 일행이 진짜 음식을 차려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래프팅 그룹은 식사가 뛰어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신선하고 따끈한 음식이면 거의 아무 거나 지친 배낭족들에게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음식과 교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부드러운 모래 위에 슬리핑백을 깔고서 별 아래서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나누면서 해가 지고 난 후엔 별에 대한 지식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곧 우리가 누워있는 곳이 거의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강을 바로 가로질러 내부협곡(*Inner Gorge*)의 절벽 바로 위에 북극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큰국자자리(큰곰자리)는 북극성을 가리키는 알파별과 베타별(*guide stars*)과 함께 아래 위가 뒤집혀 있었고, 손잡이는 오른쪽인 동쪽으로 거의 수평으로 뻗어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큰국자자리와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도는데 그것은 지구가 동쪽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레일 사진(*time-lapse photo*)에서 별들이 원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국자자리의 손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커다란 시계와 같아서 1시간마다 서쪽으로 15도씩 회전합니다. 밤하늘이 매우 어둡고 구름 한 점 없어서 온갖 다양한 별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밤하늘을 응시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 여섯째 날 찬란한 저녁에 안드로메다은하와 은하수를 보는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리 있는 별과 은하의 빛을 하루 만에 지구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자장가로 변하면서 나는 꿈나라로 빠져 들었습니다. 밤에 깼 때마다, 밤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시계가 항상 몇 시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한 경험 후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먼 은하로부터 지구까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빛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고,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국제창조과학학술대회에서 창조론적 우주론의 개요를 제시했고, 그 후에 그 주제에 관해 *별빛과 시간(Starlight and Time)*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랜드캐니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마주함으로써 자극을 받아 그 책을 쓰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효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 시편 147:4, 쉬운 성경

*He determines the number of the stars and calls them each by name. - Psalm 147:4, NIV*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 시편 65:8, 쉬운 성경

*They who dwell in the ends of the earth stand in awe of Your signs; You make the dawn and the sunset shout for joy. - Psalm 65:8, NASB*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mailto: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